

“책 남으면 진실 남아”… 눈물 자국 묻은 ‘소년이 온다’

5·18 45주년

‘소년이 왔다’ 광주를 끝나지 않았다

<7>문재학 열사 모친 김길자 여사

아들 마지막 말 “친구 두고 못 간다”
한강, 5·18 세계에 알려… ‘문학의 힘’
헌법전문수록 등 광주정신 계승돼야
“아들이 만든 민주화 기틀 자랑스러워”

“재학아 우리 재학아… 네가 뿌린 불씨
가 아직도 살아야지야.”

5·18민주화운동의 햇불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어머
니의 눈물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됐고, 한
강 작가의 문학은 진실을 세계로 전했다.

최근 광주 북구 신안동 자택에서 만난
김길자(84) 여사는 매일 아들 문재학(당
시 17세) 열사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하루
를 시작한다. 문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중 계엄군의
총탄에 스러졌다. 광주상업고등학교(현
동성고)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문 열사
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동호’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1980년 5월 25일, 김 여사는 남편과 함
께 전남도청을 찾았다. 전남부터 그곳에
머물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도
청 내부는 숨죽인 듯 조용했지만, 바깥에
서는 군화 발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2
층에 들어서자 친구 양창근(16·송일고1)
의 시신을 수습하던 아들의 모습이 보였
다.

“엄마, 창근이가 죽어갔고 드러누워부

러 있어요. 관에 담지도 못하고 그란디,
어쩐데요.”

김 여사는 집에 가자며 설득했지만, 문
열사는 친구를 두고 갈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아들의 말
에 어머니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다시 도청을 찾았다.
전날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주변을 둘러
싸고 있었고 ‘오늘 밤 계엄군이 쳐들어온
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문 열사는
‘학생들은 손 들고 나가면 괜찮다’며 남기
를 고집했다. 그날 저녁 통금(오후 7시)
이 지난 시간, 아들은 가족에게 마지막 전
화를 걸었다.

“차편이 모두 끊겨서 당장은 못가겠네
요… 일단 손 들고 나가 볼게요.”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은 계엄군의
‘상무총정작전’으로 빨강계 물들었다. 시
민군과 학생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쏟아
지는 총탄 앞에 쓰러졌다. 문 열사의 이름
은 열흘 뒤 전남일보에 실린 사망자 명단
에서야 찾을 수 있었다.

‘계엄사 4-3, 묘지번호 104, 관 번호
94.’

국가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문 열
사의 시신을 망월동에 묻었다. 묘지에서
관도 없이 담요에 싸인 아들의 시신을 확
인했을 때, 김 여사는 무너졌다. “내 자식
이 맞다”며 묘를 부여잡고 오열하던 기억
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다. 아들의
‘폭도 누명’에 대한 죄책감도 평생 짊어졌
다.



최근 광주 북구 신안동 자택에서 만난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가 아들을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그러나 이제 김 여사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오월의 희생이
민주주의 뿌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
문이다.

“도청에 남았던 이들 덕분에 오늘의 민
주주의가 있는 거지요. 그날의 교훈이 지
난해 12·3 비상계엄 때 시민들을 광장으
로 일으켜 세웠다고 믿어요. 5·18은 시민
이 어떻게 연대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알

게 해줬어요.”

김 여사는 최근 ‘문학의 힘’을 새삼 느
꼈다고 했다. 남편 문건양 씨가 눈물로 읽
던 한 권의 책 ‘소년이 온다’ 덕분이었다.
도청에 남은 소년들의 마지막을 세계에
알린 이 작품은 문재학 열사를 모델로 한
‘동호’를 통해 그날의 참혹함을 생생히 전
했다.

“한강 작가님이 우리 재학이를 기억해

주고, 그 아픔을 널리 알리니 너무 감사하
지요. 평생 울부짖으며 5·18을 알리려 해
도 안 되는 일을 소설 하나로 해냈잖아요.
이 책 덕분에 진실도 남았습니다. 정말 기
적 같은 일이에요.”

김 여사는 책을 펼칠 때마다 아픔이 밀
려와 덮기를 수백 번 했다. 남편은 밑줄을
긋고, 눈물 자국을 남기며 책을 읽었다.
지난해 11월, 그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소년이 온다’를 광주시에 기증했다. 이
책은 이제 5·18을 알리는 문학적 상징이
됐다. 김 여사는 5·18이 단순한 추모의 대
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갈 역사’라
고 강조했다.

“5·18은 5월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오래 기억해야 해요. 지금만 기념
하고 덮어두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이죠. 다
시는 비참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날
의 진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방법 중하나
가 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45년이 흘렀지만, 김 여사의 시간은 여
전히 도청을 떠나던 발걸음에 멈춰 있다.
하염없이 닦아낸 손끝의 눈물 자국은 지
금까지의 고뇌와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이
제는 아픈 곳도 많고 몸이 불편해 아들 보
러 5·18 묘지 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김 여
사는 담담히 눈을 감았다.

“요즘 ‘꿈에라도 아들을 한 번 보게 해
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어요. 지금쯤이면
아들 딸 낳고 건설한 가정이 됐을 건데…
그래도 민주화의 기틀을 만들고 간 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문재학’ 이름
이 기억되는 한, 광주정신의 불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요.”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호프집서 술 86병 ‘슬쩍’… 상습절도 40대 구속

업주가 자리 비운 틈 노려 범행

영업 중인 가게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주류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영업 중인 주점에서
수차례 주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중반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
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호프집
에서 12차례에 걸쳐 소주와 맥주 등 주류
86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업주가 결제

나 음식 준비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가
게 안으로 들어가 술을 훔쳐 달아나는 수
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꾸만 사라지는 술병에 이상함을 느낀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섰
고, 결국 A씨는 덩미를 잡혔다.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한
그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술이
마시고 싶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
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
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윤준명 기자**

영암서 전동차 탄 50대 남성 수로로 추락해 숨져

전라남도 영암에서 전동차를 타고 이동
하던 50대 남성이 도로 옆 수로에 빠져 숨
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31분께 영암 덕진면의 한
도로 인근 수로에 A(50)씨가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
대가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
였다.

경찰은 몸이 불편한 A씨가 수로를 미
처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전남 여수서 차량 바다로 추락… 50대 남성 사망

전남 여수 여객선터미널 인근 바다에
차량이 빠져 50대 남성이 숨졌다.

2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35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한
여객선터미널 인근 바다에 차량 한 대가
추락했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바다에
침수중이던 SUV 안에서 50대 남성 A씨
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
정이다. **이정준 기자**

광주 초교 공사장 인부 추락사… 현장엔 ‘사다리’ 없어

60대 노동자 가설비게서 추락
사다리 미설치, 안전 규정 ‘위반’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의 한 초등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의 노동자가
2m 높이의 가설비게에서 추락해 숨진 사
고와 관련, 현장에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
았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씨(61)는 관내 초등학교 전장 배관 공사
를 위해 2m 높이의 가설 비게에 올라 작
업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머리에 큰 부
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비게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되는 구조물로, 건물 내부 공
사 시 흔히 사용된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
해 비게에 별도의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안전 의무사항인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
은 사고현장 비게. **독자 제공**

그러나 철골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
에 현장에서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번거롭기 때문이다. 실제
로 이번 사고 역시 현장 비게에는 어떤 형
태의 사다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게는 올라갈 때는 큰 어
려움이 없지만,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틀 사이 간격이 최소 60cm 이상
벌어져 있어 발을 헛디딜 경우 추락 위험
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시공
사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비게에 사다리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처럼 별도 설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며 “이는 명백한 안전 규정 위
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공사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자 책임 여부에 대
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유철 기자**

광주서 대선 후보자 벽보 훼손 잇따라… ‘경찰 추적’

2년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광
역시에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
가 잇달아 접수됐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
일 오후 7시께 서구 유덕동에서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송

후보의 벽보 사진 얼굴 부분이 담뱃불로
인해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오후 2시께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게재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벽보를 훼손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을 훼손·절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각종 선거 사범에 대한 총
력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훼손된 선거운
동 시설물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